

韓醫學的 人間觀*

홍 원 식**

1. 머리말

초기의 한의학(원시시대의 의학을 지칭함)은 질병에 대한 단순한 경험의 체계에 불과하였지만 춘추전국시대(BC 770–221)의 체계적인 지식의 집적을 거쳐 한대(BC 206–AD 220)에 이르게 되면 의학으로써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게 된다. 이 시기에 나온 《黃帝內經》¹⁾ (이하 《內經》이라고 간칭함.)은 이후의 한의학 이론의 기본틀을 제공하여 주어 이후의 韓醫學史를 주도 하였다.

의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한의학에는 이에 따라 인간에 관한 많은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內經》을 바탕으로 하므로 《內經》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한의학적 인간관의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에서 이를 《內經》을 중심으로 하여,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한의학의 인간관

1) 天人相應

“天人相應說”은 인간과 자연은 상응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하늘의 이치를 보고, 굽어 보아 땅의 법칙을 관찰한다(仰觀天文, 倦察地理)²⁾”는 실천 원칙을 적용시켜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얻어낸 결론이다. 이 이론은 인체의 생명활동과 자연계의 변화는 상호 관련이 있다고 한다.³⁾

* 제1회 한방간호학연구회 간호학술대회에 게재되었던 자료임.

** 한국 한의학연구소 소장

1) 書名. 内經이라고 간칭하기도 함. 黃帝와 岐伯 등의 문답형식으로 쓰여 있음. 이는 중국에 현존하는 최초의 醫著이며, 대략 전국시기에 성서되어 한대에 그 체계가 완성됨. 원서는 18권임. 즉 「素問」, 「鍼經」(당나라 이후의 傳本에는 「靈樞」라 개칭함) 각 9권임. 내용은 의학이론이 위주이고, 鍼灸, 方藥의 치료가 있음. 실증적 관점에서 기초이론, 변증론, 병증 등 다방면의 내용을 기록하여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정립함.

2) 《周易·繫辭下 2장》의 “仰則觀象於天, 倦則觀法於地.”, 《素問·五運行大論》의 “仰觀其象, 雖遠可知也.”

3) 《素問·至真要大論》의 “天地合氣, 六節分而萬物化生.”, 《難經·八難》의 “氣者, 人之根本也.”

天人相應論은 인간과 자연의 기능적 대응과 형상적 대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고찰이 가능하다.

먼저 기능적인 대응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은 자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그 氣가 서로 통한다.⁴⁾ 인간은 자연계의 변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일으킨다.⁵⁾ 인간의 생리는 사계절의 교체에 따라 發生과 生長收藏을 반복하므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인체는 병들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⁶⁾ 자연계의 법칙은 인간의 생리 법칙과 똑같으므로 인체의 생리는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면 쉽게 깨우칠 수 있다.⁷⁾ 《素問·離合眞邪論》에서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江河의 변화로 인체 경맥의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⁸⁾

둘째, 인체는 자연계의 변화에 대하여 조절, 적응능력이 있다.⁹⁾ 인간이 복잡다단한 자연계에서 자손을 번식하면서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적응 능력 때문이다. 《素問·異法方宜論》에 나오는 지리적 조건의 차이가 만들어낸 기후, 풍토, 음식, 거처 및 생활습관의 차이가 체질과 常見病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논리가 이를 잘 설명하는 내용이다.¹⁰⁾ 지리적 조건에 순응하여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계절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四時의 변화를 예지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素問·寶命全形論》에서는 이를 “人能應四時者，天地爲之父母。知萬物者，謂之天子”라고 하였다. 인간이 生長化收藏의 법칙을 알아서 四時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다면 자연이 부모가 자식을 보양하듯이 자신을 길러주므로 자연계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상적으로도 인간과 자연은 대응한다.¹¹⁾ 인간이 자연의 기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형상이 자연의 형상과 유비적 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소우주이다”라고 하는 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상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자연계와 유사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리, 병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계와의 기능적 대응과 형상적 대응 모두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內經》에서는 “善言天者，必有驗於人。”(《素問·舉痛論》), “聖人之爲道也，上合于天，下合于地，中合于人事”(《靈樞·逆順肥瘦篇》)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을 투철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바꿔 놓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知之則強，不知則老.”, “愚者不足，智者有餘。有餘則耳目聰明，身體輕強，老者復壯，壯者益治”라고 의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신체를 강건하게 하여 쇠노하는 현상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도 섭생의 도를 잘 깨우친 사람은 백세 이상 장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그 예로 《素問·六節藏象論》의 “天食人以五氣，地食人而五味”，《六微旨大論》의 “人能應四時者，天地爲父母”，“上下之位，氣交之中，人之居也”로써，人間이 天地의 가운데 살면서 天地의影響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설명이다. 《素問·金匱眞言論》의 “五臟應四時，各有收受”，《生氣通天論》의 “平旦人氣生，日中陽氣隆，日西而陽氣已虛，氣門乃閉”，《八正神明論》의 “月始生，則氣血始精，衛氣始行，月廓滿，則血氣實，肌肉堅，月廓空，則肌肉減，經絡虛，衛氣去，形獨居”는 인간의 생명활동은 四時，六氣，日月，星辰의 운행변천에 따라서 변천한다는 것이다.

5) “봄에 생겨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수령하고 겨울에 저장하는 것은 氣의 멋진 것이다. 인간도 이에 응한다(春生，夏長，秋收，冬藏，是氣之常也，人亦應之).”(《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

6) “東風生于春，病在肝”；“南風生于夏，病在心”；“西風生于秋，病在肺”；“北風生于冬，病在腎”。(《素問·金匱眞言論》)

7)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故清陽爲天，濁陰爲地；地氣上爲雲，天氣下爲雨；雨出地氣，雲出天氣。故清陽出上竅濁陰出下竅；清陽發腠理，濁陰走五臟；清陽實四支，濁陰歸六腑。”에서 자연의 이치로 인체의 생리를 설명하고 있다.

8) “天地溫和，則經水安靜；天寒地凍，則經水凝泣；天署地熱，則經水沸溢；卒風暴起，則經水波湧而龍起。夫邪之入於脈也，寒則血凝泣，署則氣淖澤，虛邪因而入客，亦如經水之得風也，經之動脈，其至也亦時龍起。”

9) 인류는 장기적인 생존경쟁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여 생활해 가는 자동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다. 《靈樞·五隆津液別論》에서 이를 “天署衣厚則，腠理開，故汗出，……天寒則，腠理閉，氣濕不行，水下流于膀胱，則爲尿與氣。”라 설명하고 있다.

10) “故東方之域，天地地所始生也，魚鹽之地，……西方者金玉之域，沙石之處，……北方者，天地所閉藏之域也，其地高陵居，……南方者，天地所長養，陽之所盛處也，……中央者，其地平以濕，天地所以生萬物也衆，……”

11) 《靈樞·邪客》의 “黃帝問於伯高曰：願聞人之肢節，以應天地奈何。伯高答曰：天圓地方，人頭圓足方，以應之。天有日月，人有兩目，地有九州，人有九竅。天有風雨，人有喜怒。天有雷電，人有音聲。天有四時，人有四肢。天有五音，人有五臟。天有六律，人有六腑。天有冬夏，人有寒熱。天有十日，人有手十指。辰有十二，人有足十指。葦垂以應之，女子不足二節，以抱人形。天有陰陽，人有夫妻。歲有三百六十五日，人有三百六十節。地有高山，人有肩膝。地有深谷，人有腋臍。地有十二經水，人有十二經脈。地有泉脈，人有衛氣。地有草莖，人有毫毛。天有晝夜，人有臥起。天有列星，人有牙齒。地有小山，人有小節。地有山石，人有高骨。地有林木，人有募筋。地有聚邑，人有臍肉。歲有十二月，人有十二節。地有四時不生草，人有無子。此人與天地相應者也。”

《內經》의 天人相應論은 신비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 “天人合一”이나 “天人感應”과는 구별된다. 前者가 인간이 자연과 상응한다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면 후자는 다분히 유심주의적으로 天이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로 人事를 주체한다고 주장한다. 서한시대에 “天人感應”을 주장한 동중서는 《春秋繁露·爲人者天》에서 “天亦人之曾祖父也, 此人之所以乃上類天也. 人之形體, 化天數而成”이라고 하여 天이 인간을 지은 것은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이므로 인체의 구조는 天數와 서로 부합되며 人事도 天意와 상응한다고 하였으니 다분히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 하겠다. 《內經》은, 이와 같은 종교적인 전재를 부인하고, 인간은 자연의 산물로써 자연계와 근원을 같이하며 자연계와 함께 陰陽五行 法則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이를 여러가지로 관찰한 경험을 집약하여 天人相應論으로 요약하였다.

생리 및 병리가 이와 같이 자연과의 연관성 속에서 운용되므로 이를 파악한 인간(특히 의사)은 진단과 치료, 예방에 힘쓸 수 있게 된다.

한의학에서 진단은 望聞問切 四診을 바탕으로 한다. “望”이란 눈으로 환자의 形色을 살피는 것이고, “聞”은 환자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는 것이고, “問”은 환자의 호소를 듣고 이를 참조하는 것이고, “切”은 직접 脈을 짚어 보거나 배를 눌러 보거나 하는 것이다. 이들 네가지를 종합하여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치료에 응용한다. 진단에서 최고로 중시되는 맥진에 있어서도 四時의 인식은 필수 불가결하다. 四時 특유의 脈象은 春은 弦, 夏는 鉤, 秋는 毛, 冬은 石인데, 만약 脈象이 四時에 부합되게 나타난다면 그 질병은 치유되기 쉽지만 그 반대라면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脈과 四時의 부합은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四時陰陽은 萬物의 根本이고 死生의 根本이므로 그 변화 추이에 순응하고 있으면 질병은 생기지 않지만 양생을 계율리하여 사시에 거슬리는 생활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질병과 재해를 초래하게 된다. 인체의 기가 모인 곳도 四時에 응한다. 《素問·四時刺逆從論》에서 “춘기는 경맥에 있고, 하기는 손락에 있고, 장하의 기는 기육에 있고, 추기는 피부에 있고, 동기는 끝수 중에 있다(春氣在經脈, 夏氣在孫絡, 長夏氣在肌肉, 秋氣在皮膚, 冬氣在骨髓中).”라고 하였는데, 치료할 때에도 이점을 고려하고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양생도 四時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사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사는 방법과 그를 어겼을 때 생기는 질병을 말하고 있는 데¹²⁾ 이것이 한의학의 양생방법이다.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의식, 사유, 감정 등 정신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神과 氣, 血, 精, 津液, 臟腑, 經絡, 營衛 등 육체적 측면을 포괄하는 形으로 대별된다. 이 神과 形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며 形과 神이 분리된 것은 질병이며, 그 극단적인 경우는 죽음이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유익함을 유지하여 건전한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육체의 合一(形神合一)에 힘써야 한다. 이 二大要素도 인체의 생명과 자연계의 변화가 상호관련을 설명하고 있는 天人相應論을 바탕으로 설명된다.

이와같이 天人相應의 理論은 醫學에 있어서 人間과 自然을 하나의 統一的인 整體觀의 觀點으로 설명하여 韓醫學의 生理, 病理, 診斷, 治療,豫防 등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인체는 이와 같이 자연과 상응하면서 자신의 생리기능을 영위해 간다.

2) 人間觀 (附 人生論)

《莊子·知北游》(莊子는 BC 369-286 동안 생존함)에서 “인간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은 氣가 모여서이다. 기가 모이면 생명을 얻게 되고, 기가 흩어져 사라지면 죽게 된다(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氣를 사용하여 인간이 어떻게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한 예이다. 또 漢代의 동중서(董仲舒)는 “天은 백가지 神의 大君이다(天者, 百神之大君也)”(《春秋繁露·郊祭》), “인간의 인

12) “春三月, 此謂發陳, ……夏三月, 此爲蕃秀, ……秋三月, 此謂容平, ……冬三月, 此謂閉藏.”

간됨은 天을 근본으로 하여서이니 天도 역시 인간의 증조부이다(人之爲人，本于天，天亦人之曾祖父也)”(《春秋繁露·爲人者天》)라고 다분히 종교적인 색깔로 인간의 기원을 기술하고 있다. 동중서와 거의 동시에 그 이론적 골격을 완성하였고 한의학의 기초 이론을 마련해 주었다는 《黃帝內經》에서는 이에 반하여 인간을 천지자연의 산물로 보고 있다.

《內經》에서는 “위와 아래 자리의 氣가 만나는 가운데에 인간이 기거한다(上下之位，氣交之中，人之居也)”(《素問·六微旨大論》)라고 인간의 기원과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우주 가운데에서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인 자연 환경을 먼저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문장에서 보듯이 《內經》에서는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를 “氣交”라고 표현한다. “기교”란 下降하는 天氣와 上升하는 地氣가 교회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隱陽의 변화에 따라 사계절이 바뀌고, 天의 六氣의 영향에 따라 地의 五行이 相生相剋의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內經》에서는 “天은 덮고 地는 실어주어 만물이 모두 갖추어지는데 인간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인간은 天地의 氣를 바탕으로 생겨나 四時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다(天覆地載，萬物悉備，莫貴于人。人以天地氣生，四時之法成)”, “天과 地가 氣를 합한 것을 인간이라 한다(天地合氣，命之曰人)”(《素問·寶命全形論》), “天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德이고, 地가 인간에게 부여한 것은 氣이니, 天의 德과 地의 氣가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시킨다(天之在我者德也，地之在我者氣也，德流氣薄而生者也)”(《靈樞·本神》)라고 하였다. “德”은 사회적 도덕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속성과 법칙까지도 말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는 인간이 동물로부터 발달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화론적 사고나 혹은 일개 창조주가 작위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종교적 색채는 전혀 느낄 수 없다. 다만 인간과 만물은 모두 함께 발생, 변화, 사멸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할 뿐이다.

人性의 善惡에 관한 문제는 《內經》이 구성된 先秦兩漢 시대의 인간에 대한 논의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孟子는 人性은 본래 善하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荀子는 이에 반하여 人性은 본래 惡하다고 주장하고 모든 사람은 “이익을 좋아하고 害되는 것을 싫어한다(好利而惡害)”라고 생각하였다. 동중서는 人性을 “聖人之性”，“斗筲¹³⁾之性”，“中民之性”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性三品說을 주장하고, 성인의 性은 善하고, 斗筲의 性은 惡하고, 中民은 善하게 될 수도 惡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 음양으로 人性의 貪과 仁을 해석하였다. 그는 “天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 隱陽을 베풀어 주고, 인간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 貪하는 性과 仁한 性이 있다(天兩有陰陽之施；身亦兩有貪仁之性)”(《春秋繁露·深察名號》)라고 하여 陽의 性은 仁하고 陰의 性은 貪하며, 인간의 貪하거나 仁한 것은 天의 隱陽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였다.

《內經》에도 人性에 관한 풍부한 논의가 존재한다. 다만 人性을 善, 惡, 貪, 仁 등의 동일한 장대로 저울질하지 않는다. 《內經》에서는 각 개인의 五臟의 차이가 인간의 정신적 측면과 육체적 측면의 차이를 나타내 준다고 인식한다.¹⁴⁾

인간의 성격 문제에 관하여 논할 때에도 인체 내부의 상태와 연결지우고 있다.¹⁵⁾ 《靈樞·論勇篇》에서 인간을 勇士와 怯士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분화 원인을 인체내의 기질적 차이로부터 찾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성격의 차이를 논한 예는 이 외에도 많다. 그 대표적인 것이 《靈樞·通天篇》의 다섯 종류의 인간형에 관한 기록¹⁶⁾과 《靈樞·陰陽二十五篇》의 25종으로 분류된 인간형이다. 《靈樞·

13) “斗”는 한 말들이 말. “筲”은 한 말 두 되들이 竹器. “두소지성”은 局量이 좁은 사람을 말한다.

14) 이는 특히 《靈樞·本藏》의 “五臟皆小者，少病，苦憊心，大愁憂。五臟皆大者，緩於事，難使以憂。五臟皆高者，好高舉措。五臟皆下者，好出入下。五臟皆堅者，無病。五臟皆脆者，不離於病。五臟皆端正者，和利得人心。五臟皆偏傾者，邪心而善盜，不可以爲人平，反覆言語也。”라는 문장 속에 잘 드러나 있다.

15) 《靈樞·論勇篇》의 “勇士者，目深以固，長衡直揚，三焦理橫，其心端直，其肝大以堅，其膽滿以傍，怒則氣盛而張，肝舉而膽橫，皆裂而目揚，毛起而面蒼，此勇士之由然者也。”, “怯士者，目大而不減，陰陽相失，其焦理縱，骨骨子短而小，肝系緩，其膽不滿而縱，腸胃挺，脇下空，雖方大怒，氣不能滿其胸，肝肺雖舉，氣衰復下，故不能久怒，此怯士之所由然者也。” 등이 그 예이다.

16) 太陰之人，少陰之人，太陽之人，少陽之人，陰陽和平之人。

通天篇》에서는 인간을 성격에 따라 다섯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고, 《靈樞·陰陽二十五篇》에서는 먼저 인간을 五行(木火土金水)에 따라 다섯 종류로 분류한 후 오음(角徵宮商羽)의 陰陽大少와 左右上下에 의거하여 다시 다섯으로 나누어 25종으로 분류하였다.¹⁷⁾

이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태어나는 순간 각 개인은 이미 구별지워져 있다. 그러나 반면에 구별된 粿賦의 차이는 숙명적이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⁸⁾ 만약 인간의 차이를 숙명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의학은 필요없을 것이다. 의학의 목적은 생명의 연장이며, 이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內經》은 기록되었고 이 목적은 현재에도 변함없이 계속 추구되고 있다.

3. 결 론

한의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초월적 신의 작위에 의해 창조되었다거나 자체적으로 진화되었다고 보지 않고 다만 인간이 만물과 함께 발생, 변화, 사멸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본다. 인간의 본성을 논할 때도 善, 惡, 貪, 仁 등의 동일한 것대로 저울질하지 않고, 인간의 선천적 粿賦에 달려 있다고 할 뿐이다. 각 개인의 정신적 측면 혹은 육체적 측면의 차이는 인체 내부에 있는 장부의 偏正의 차이의 외부적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나 구별된 粿賦의 차이는 숙명적이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

인간에 관한 논의 전체를 째뚫고 있는 논리는 天人相應論이다. 이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계와 기능적으로 또 형상적으로 상응하고 있다. 기능적인 대응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은 자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며 그 氣가 서로 통하고, 둘째, 인체는 자연계의 변화에 대하여 조절, 적응능력이 있다. 또한 형상적으로도 인간과 자연은 대응하니, 인간이 자연의 기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형상이 자연의 형상과 유비적 대응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소우주이다”라고 하는 말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형상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자연계와 유사하다는 전재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리, 병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계와의 기능적 대응과 형상적 대응 모두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생리 및 병리가 이와 같이 자연과의 연관성 속에서 운용되므로 이를 파악한 인간(특히 의사)은 진단과 치료, 예방에 힘쓸 수 있게 된다.

4. 참고문헌

- (1) 홍원식 편저,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소, 1987.
- (2) 『黃帝內經素問校釋』上·下, 인민위생출판사, 1982.
- (3) 『黃帝內經靈樞校釋』上·下, 인민위생출판사, 1982.
- (4) 周谷城, 『中醫學三百題』, 上海古籍出版社, 1989.
- (5)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 (6) 홍원식, 『精校黃帝內經靈樞』, 동양의학연구원 출판부, 1985.
- (7) 劉長林, 『內經的哲學和中醫學的方法』, 科學出版社, 1982.
- (8) 박일봉 역자, 『莊子』, 育文社, 1990.

17) 木形之人, 火形之人, 土形之人, 金形之人, 水形之人。

18) 《素問·上古天真論》의 “夫道者能却老而全形, 身年雖壽, 能生子也”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